



유리용기 시장동향

Market Trend of Glass Bottle

전계수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과장

1. 서론

현재 국내유리제품 제조업체 수는 약 90여개 업체로 추정되며, 이중 용해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약 70여개 업체로 나머지 20개여개 업체는 임대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조합원 업체의 품목별 업체수를 살펴보면, 유리병 제조업 16개사, 산업용유리 제조업 10개사, 유리식기 제조업 13개사, 물 유리 제조업 6개사, 판유리 제조업 2개사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유리제조업체가 수동업체로 전체 유리제조업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영세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리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열악한 업체들이 상당 수 있어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리 산업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급속도로 변해가는 소비자의 성향과 외국

고가 수입품에 맞서 나가기 위해 고품질, 다양한 디자인 등 다품종 소량생산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유리용기는 제품의 내용물을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가시성, 청결성 및 화학적 내구성, 기밀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포장용기로서 주류, 청량음료,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유리병 제조업은 '80년대 이전에는 우수한 특성을 갖춘 포장용기로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져 왔으나 '80년대 이후 각종 일회용 대체용 기의 개발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손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용기의 급격 한 증가로 국내 유리병업체는 약 25개 업체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품 질을 통한 수출활성화와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

(표 1) 자동제병업체 현황

(2001년 자료)

구 분	금비	두산	삼광	수석농산	안성	대평양	하이트	코다	제
종업원(명)	196	666	355	152	135	118	73	94	1,789
용해로(톤/일)	360	1,060	503	150	200	62	150	100	2,585
재고량(톤)	2,085	42,849	11,031	3,570	1,495	808	1,867	642	64,347

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리병 제조업체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체용기의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유리병의 최대 장점인 재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유리병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국내 유리용기산업 현황

국내 유리병 업체는 자동 및 수동을 포함해서 약 20개 업체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자동제병업체는 8개사로 [표 1]과 같이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이루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11.9% 감소하였으며, 시설도 1.6% 감소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재고량은 2000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판매량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제병 8개사의 유리병 생산량은 2000년과 비슷한 73만7,942톤으로 집계

됐으며 이와 함께 판매량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74만2,665천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조합에서 조사한 2001년 자동제병 8개사의 유리병 생산 및 판매 현황 [표 2]에 의하면 병 종류별 생산, 판매량의 경우 건강영양음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14.5% 증가한 21만7,806톤의 생산과 21만9,577톤의 판매를 보였다. 특히 소주 시장의 활성화로 판매량이 전년대비 28.2% 증가한 12만6,896톤의 판매를 보여 소주 소비량의 증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2000년도의 맥주 소비 증가로 많은 판매를 보여주었던 맥주병이 2001년도에는 주춤하여 7만9,081톤 생산, 7만9,610톤의 판매로 3.8% 감소세를 나타내 소주병과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건강영양음료 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던 건강영양 음료병이 2001년에 이어 올해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 및 선거 특수로 인해 갈색병 부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수요변동에 대한 공급능력의 조절이 어려워 항상 최대 수요를 겨냥하여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해 왔으며 이로 인



유리병 동향

(표 2) 국내 유리병 연도별 판매량 추이

(2001년 자료)

구 분	1999	2000	전년대비(%)	2001	전년대비(%)
맥주	43,032	82,742	188	79,610	96.2
소주	158,713	98,984	62.4	126,896	128
양·집주	50,822	65,330	128.5	75,634	115.8
청량음료	18,918	23,059	122	23,751	103
건강·영양	154,563	191,739	124	219,568	114.5
식품·조미료	64,999	59,315	91.3	53,722	90.6
화장품	180,345	156,136	86.6	131,426	84.2
약병	10,364	10,245	98.8	10,328	101
수출·기타	34,699	26,091	75.2	21,730	83.3
계	717,455	713,641	99.5	742,665	104

해 공급과잉 및 갑작스러운 수요변동에 대처하지 못한 몇몇 기업들이 IMF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과잉 시설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유리용기제조업은 현재 적정한 공급을 유지하면서 가격 또한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콜라, 사이다가 주류인 청량음료병 및 식품병은 중량문제로 인해 점차 PET, 캔 제품으로 바뀌고 있은 추세이며 음료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한 유리용기시장은 PET, 캔 등의 시장잠식으로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향후전망

현재 유리용기시장은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량의 공급이 유지되면서 고가의 가격을 받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과 관

련하여 건강음료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 음료병은 공급부족현상 까지 나타나고 있어 타 유리제품에 비해 상당히 활황을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병 업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리용기 시장의 많은 부분을 PET 및 캔 제품의 출시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는 이때에 유리의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개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유리용기 제조업체들은 이전의 경쟁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설비투자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대체용기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유리용기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기울인다면 유리 용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ko]